

숨이 노래하게

휘파람이 정교한 바람의 말하기라면 콧노래는 저절로 흘러나오는 흥얼거림에 가깝다.

휘파람은 자주 대상을 가진다. 멀리 있는 개나 사람을 부를 때처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도 한다. 바람을 조절해 정확한 음정을 내는 것은, 대부분의 악기 연주가 그렇듯 자기 혼자 듣기 위해서일 때보다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일 때가 많다. 어느 정도 기술도 필요하다. 세상에는 휘파람을 전혀 불 줄 모르는 사람들과 멋진 휘파람을 불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연습 해도 휘파람을 불 수가 없는 사람은, 길에서 몇 음절의 휘파람 소리만 들려도 감탄하며 돌아보게 된다.

콧노래는 다르다. 일단 입을 다물어야 한다. 흥얼거린다는 말의 사전적 정의에는 ‘흥에 겨워 입 속으로 노래를 부른다’ 뿐 아니라 ‘남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입 속으로 한다’도 있다. 입을 다물고 부르는 노래는 누군가에게 제대로 가 닿아야 한다는 목적이 없을 때 주로 나온다. 그것은 말을 하는 노래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다. 원곡이 뭐였는지, 새롭게 만든 것인지, 자작곡이라면 얼마나 완성도가 있는지 따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부르다 쉽게 달라지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결말을 향해 간다. 코로 나오는 숨에 실리는 멜로디는 애초에 누구를 부를 만큼 큰 소리가 될 수 없고, 연습한다고 기술적으로 더 훌륭한 것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휘파람에는 교수나 달인이 있을 수 있지만 콧노래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다문 입 속에서 무심히 코로 나와 스스로를 향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김지영(109)은 다른 이들의 콧노래를 모으기 시작했다. 물물교환이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서울 시민 40여 명의 콧노래를 수집했다. 그것들은 지난 겨울 퍼포먼스 《콧-노래 산책》에서 작은 깃발이 되었다. 콧노래를 시각 이미지로 만든 자수드로잉이 박힌 깃발에 사운드 장치를 달아 콧노래가 나오게 했다. 관객들은 그 깃발을 하나씩 들고 눈 덮인 북한산을 걸었다. 깃발에서 나오는 콧노래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것을 따라해 보거나, 상관없이 자기의 콧노래를 부르거나 하면서 움직였다. 타인의 콧노래와 함께 이동하는 경험이 중요했던 《콧-노래 산책》과는 다르게, 전시 《싱잉노즈》에서는 고정된 장소에서 좀 더 많은 이들의 개별 콧노래와 관람객이 느끼는 다양한 감각에 집중한다.

김지영(109)은 소리를 보여주거나 만지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소리라는 것이 공기를 만지는 것 같은, 촉각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콧노래의 모양, 콧노래들끼리 만나는 순간을 시각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재미가 있었어요.” 그는 소리를 내고-듣는 행위에, 진동을 만들고-(촉각적으로)느끼는 행위와, 시각 이미지를 그리고-보는 행위를 교차시킨다. 그는 콧노래가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에게서 나와, 나를 향하는 노래. 그러나 다문 입 속에서 내는 그 소리는 온전히 귀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노래이지만 청각만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입 안에서 만들어지는 동시에 스스로를 울리는 진동, 귀가 아닌 피부와 근육으로 느껴지는 어떤 간질간질함이 있다. 내가 만든 소리가 나를 몸 안에서 어루만지는 것 같은 기분. 어떤 감각의 발신과 수신 사이에 거리가 아주 좁혀져 ‘나의 몸’ 혹은 ‘내 몸의 어느 기관 하나’가 되어버릴 때, 어떤 감각은 다른 감각과 경계가 흐릿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코의 경우, 소리라는 감각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닌 피부로 느껴서 아는 것

이 되기도 한다. 작가는 그것을 콧노래가 가진 ‘누군가 어깨를 두드려 위로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한다.

무심하게 흘러가는 콧노래가 가지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감각, 노래이지만 노래라고 하기에 조금 어색한 부분, 잠깐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지는 어떤 진동은 왠지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개인과 그를 둘러싼 일상의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누군가 여유롭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바쁘거나 슬플 때는 아무도 콧노래를 부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몸 안쪽으로 부터 그를 토닥이고 있다. 관람객이 전시장의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아래에서 위로, 물결무늬를 그리면서 대각선으로 흘러가는 콧노래들에 둘러싸여 감각하는 것은 모르는 이의 내밀한 순간, 그가 스스로를 위해 숨으로 노래를 만드는 순간이다. 노래로 변한 숨은 귀로 들을 수 있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고, 눈으로 보거나 입술에 닿아 만질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숨의 감각들은 관람객이 스스로의 숨으로 노래하게 한다.

다이에나랩 유선